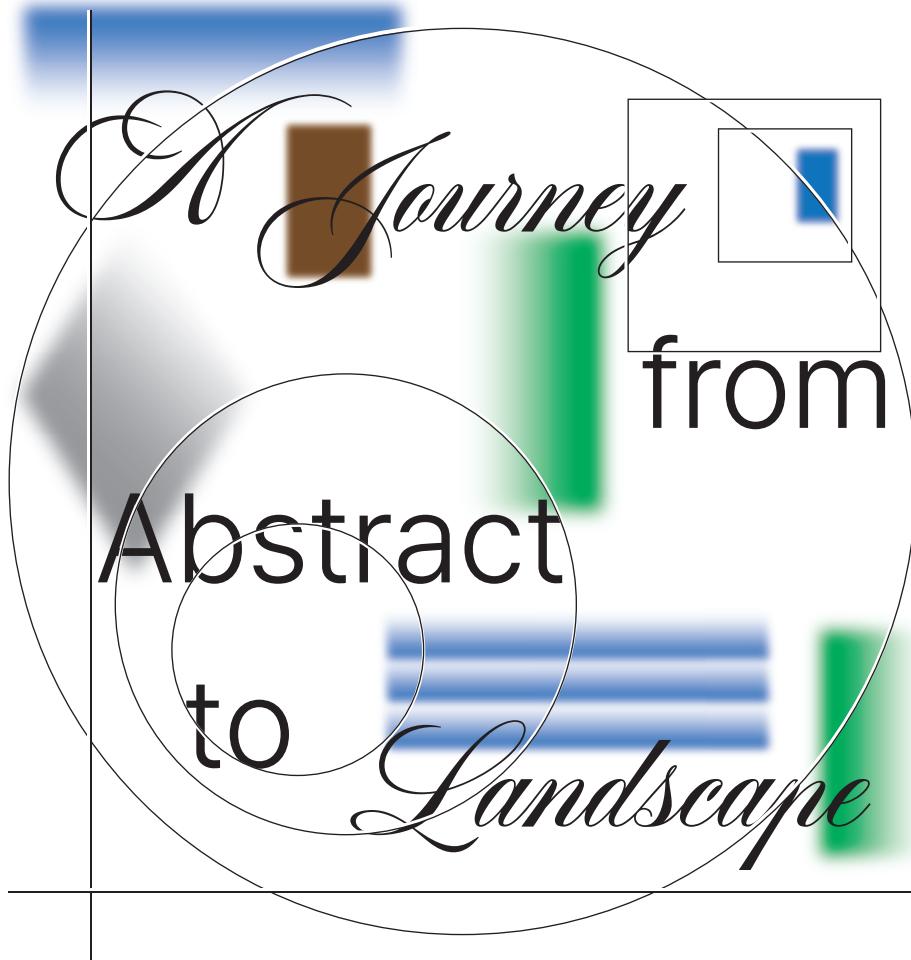


2025 충북문화관 기획전

조병현 회고전(1921~2011)

주상에서 풍경으로의 여정



25 . 11 . 11 . Tue -
25 . 12 . 14 . Sun

충북문화관

25 . 12 . 24 . Wed -
26 . 01 . 19 . Mon

충북갤러리

“추사체 특유의 꺾인 듯한 붓터치와 고졸한 느낌의 굵은 선을 닮은 화면은 마치 태초의 생명이 탄생하기 직전의 혼란을 연상케 한다. 화면의 질감 또는 짙은 물감을 두텁게 빌라 거칠게 표현하고 있어 앵포르멜의 전형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추상에서 풍경으로의 여정

이번 전시 '추상에서 풍경으로의 여정'은 한국 기하학적 추상미술의 선두 주자로 비구상과 구상을 넘나들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작고 작가 조병현(1921~2011)을 조명하는 자리이다. 조병현은 평생 제도권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고집스럽게 자기의 역사를 일궈 온 모더니즘의 핵심 작가라 할 수 있다.

조병현은 1921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괴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일본 태평양미술학교에서 수학했고, 한국 현대미술의 시대적 흐름과 함께하며 여러 주요 단체 '신조형파, 신상전, 상형전, 현대사생회'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다. 특히, 그는 추사체에서 영향받은 앵포르멜 형식으로부터 논리적인 기하학적 추상과 절대주의적 회화 경향까지 자신만의 조형 실험을 탐구해 갔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추상회화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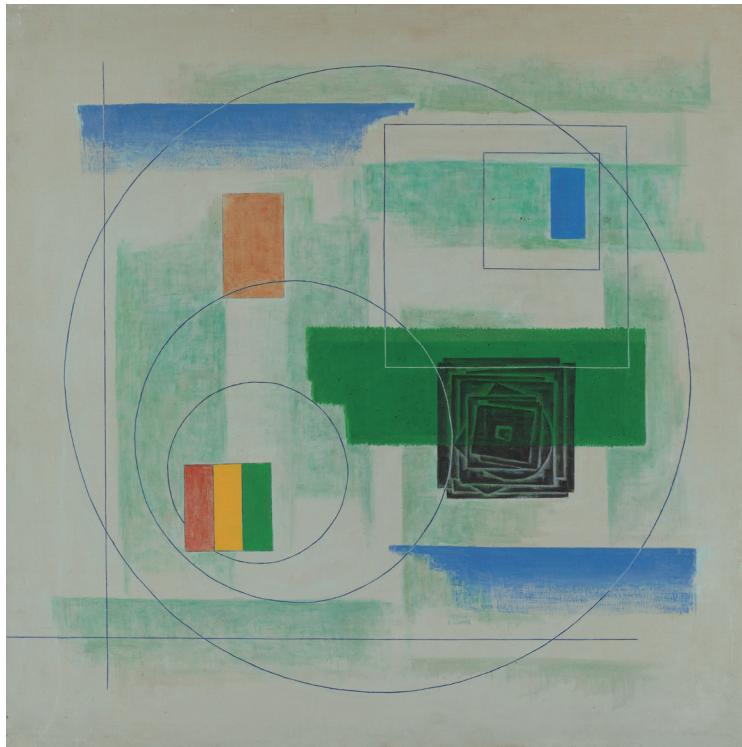


작품(作品) 5-59, 1959, 캔버스에 유채, 73×91cm,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소장

구상 작업으로 전향하여 자연을 스승 삼아 '기운생동'하는 풍경에 몰두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 자연의 재현이 아닌 조형 회화의 색면 구성을 활용해 자연을 대담하게 구성하며 구상작가로서 자신의 예술적 입지를 확고히 했다.

무엇보다 진정한 작가의 길을 위해 기꺼이 재야작가를 선택한 그는 70년 긴 화업의 여정을 통해 독자적인 기하학적 추상의 조형 요소와 질서를 찾아내어 조화시킴으로써, 한국 미술사에서 모더니즘 주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상에서 풍경으로의 여정'은 그동안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충북 연고 작가 '조병현'을 재조명함으로써, 지역 미술사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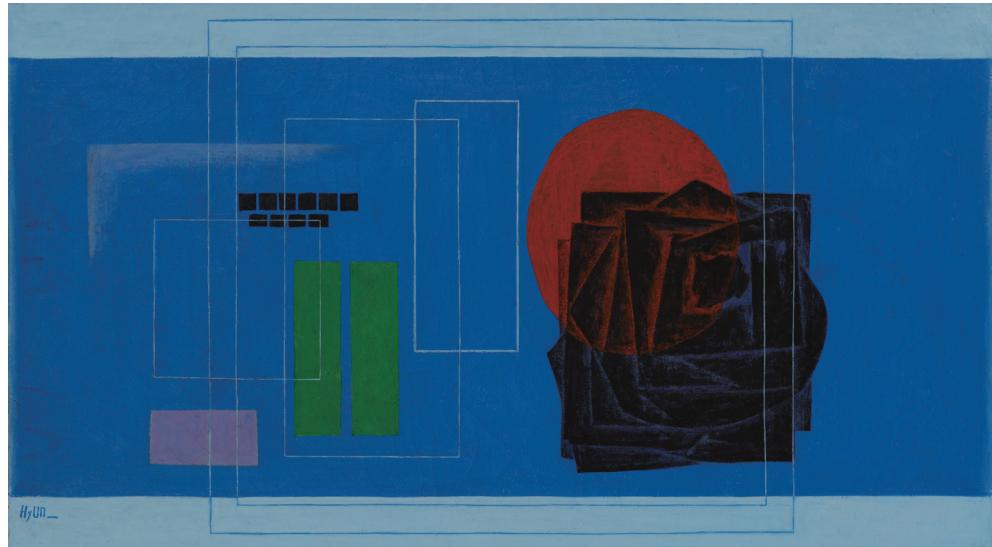


작품10-69 Work No. 10-69, 1969,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30.3×130.3cm,
유족소장 courtesy of the artist's family

A Journey from Abstract to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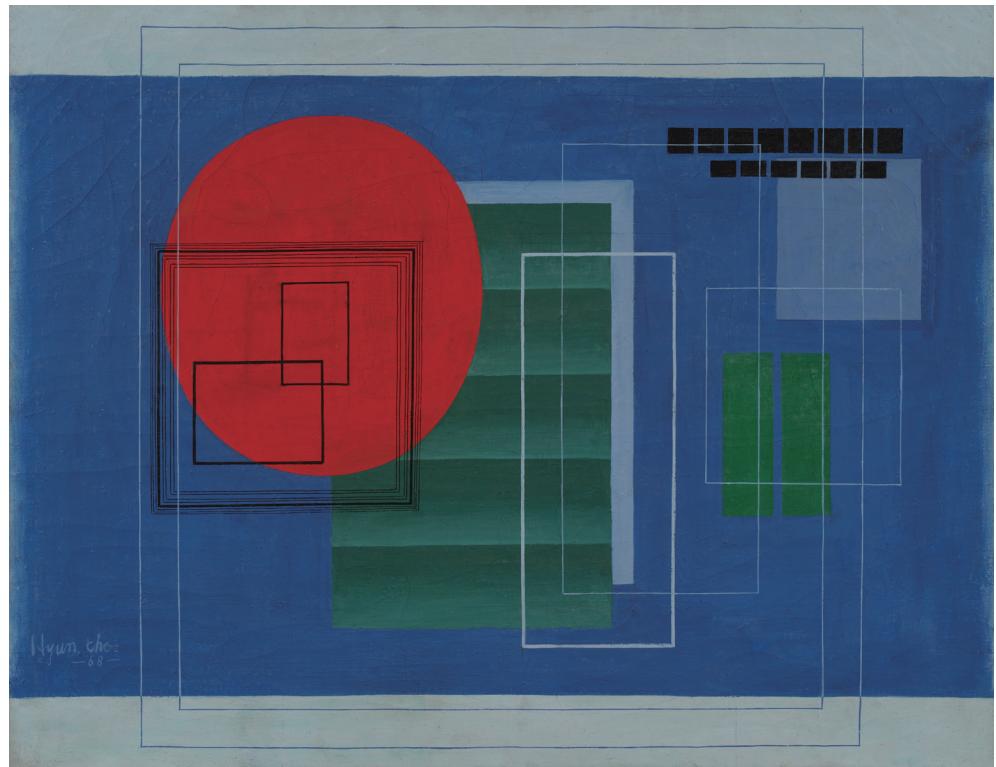
This exhibition, *A Journey from Abstract to Landscape*, highlights the late artist Cho Byung Hyun (1921-2011), a leading figure in Korea's geometric abstract art movement, who established a unique body of work that traverses the boundaries between the figurative and non-figurative arts. Cho Byung Hyun stood apart from the established art world, dedicating his entire life to pioneering his own distinct path. After a lifelong career tenaciously forging his unique artistic history, he ultimately became a key figure in Korean modernist art.

Cho Byung Hyun was born in 1921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and spent his childhood in Goesan. His passion for art led him to move to Japan to study at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15×80cm, 유족소장 courtesy of the artist's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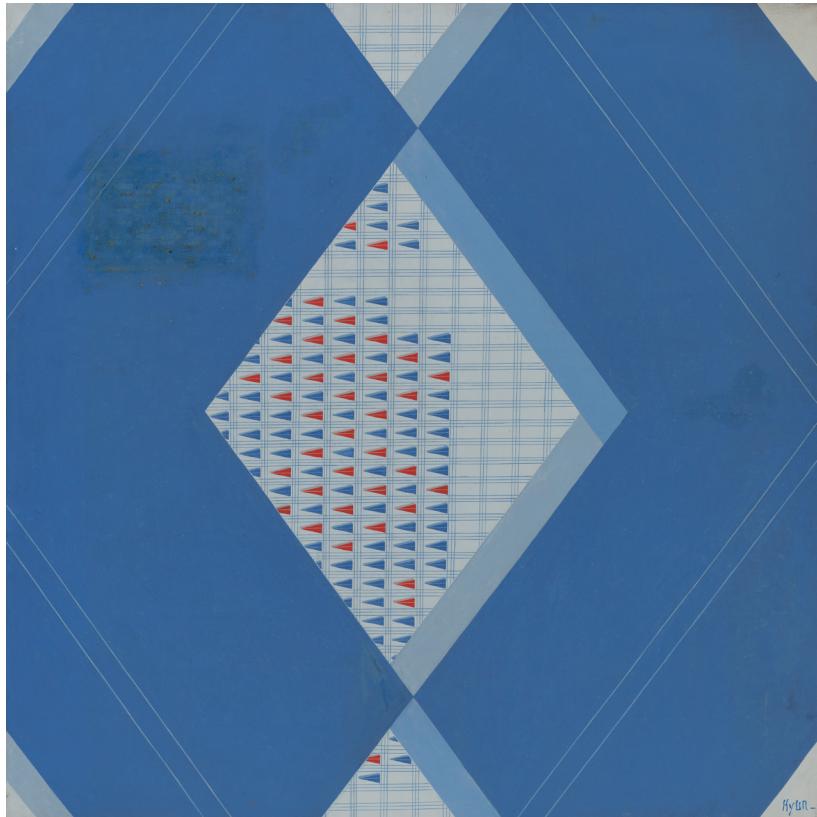
the Tokyo Pacific Art School. Since his return to Korea, he has served as a pivotal member of several major artist groups, including Sinjohyeongpa (Neo-Plastic Art Group), Sinsangjeon, Sanghyungjeon, and the Hyundae Sketching Association. From the Informel style, influenced by Chusa Calligraphy, to rational geometric abstraction, to the absolutist tendency, he ceaselessly explored diverse artistic approaches through his unique formative experiments. From the late 1970s onward, he shifted from abstract painting to figurative work and immersed himself in landscapes of Spirit Resonance and Vitality (氣韻生動), guided by nature. In this change, he transcended mere reproduction of nature and moved toward a bold reconstruction of nature using the color-plane composition of figurative painting. This innovative interpretation further consolidated his artistic standing as a figurative artist.



작품 6-68 Work No. 6-68, 1968,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90×117cm,
유족소장 courtesy of the artist's family

Most importantly, throughout his 70-year journey as a painter, Cho Byung Hyun, who willingly chose the path of an independent artist, consistently sought his own distinctive formal elements, order, and harmony in his geometric abstraction. Such achievement may have solidified his position as a key modernist artist in Korean art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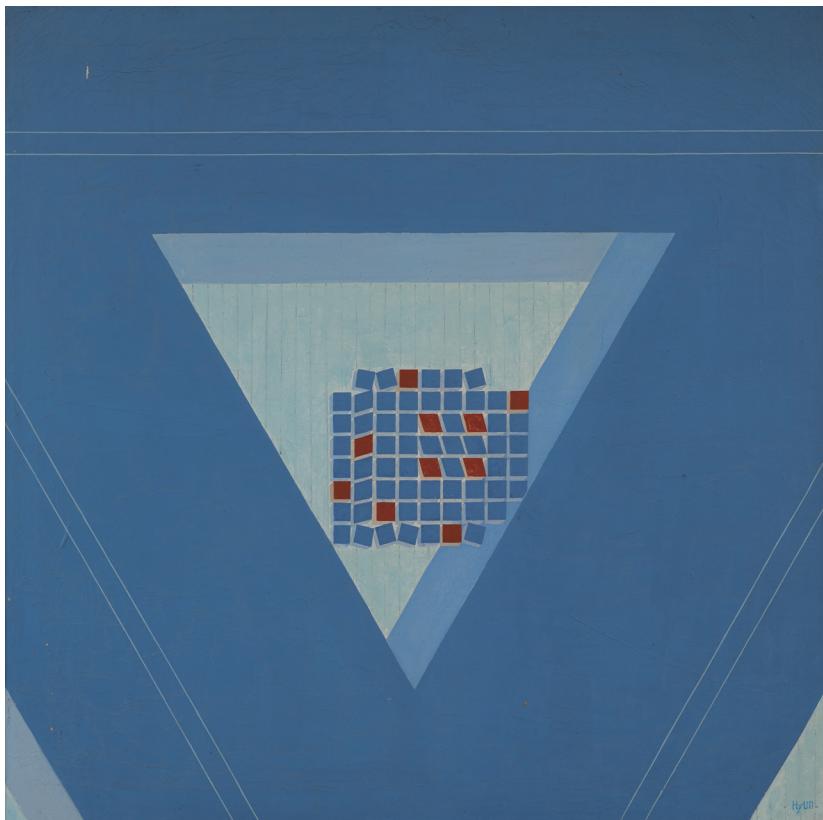
This exhibition, *A Journey from Abstract to Landscape*, sheds new light on the late Cho Byung Hyun, an artist with ties to Chungbuk who has remained underrecognized within the region, marking an important milestone in redefining the region's art-historical foundation.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31×131cm, 유족소장 courtesy of the artist's family

“추상의 조형적 실험이 이루어진 1960~70년대 조병현의 기하학적 추상시기를 조형성과 완성도에 있어 전성기로, 다양한 기하학 도형과 점·선·면의 자유로운 활용이 돋보이는 작품 등은 그를 대표하기에 충분하다.”

- 평론 발췌 -



작품4-69 Work No. 4-69, 1969,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30.3×130.3cm,
유족소장 courtesy of the artist's family

“주조색인 ‘자연의 천지 같은 청색’을 배경으로 삼각형과 사각형을 중복배치하거나 역삼각형 모양의 조형 요소들은 회화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절대주의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후 기하학적 구성이 점차 사라지며 선적인 면처리와 회색조의 등근 선적인 표현 등이 사각 틀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앵포르멜적 경향과 기하학적 양식이 혼재된 종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며 추상 작업에 고립돼 가고 있는 작가를 상징하고 있는 듯하다.”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31×131cm, 유족소장 courtesy of the artist's family

“소재를 사물로만 판단, 개념적인 조형만을 25년여 동안 작업해오다 보니 작품에 휴머니티가 결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품이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서 인정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구상 작업으로 전환한 것은 인간미가 있고 서정적인 인간과 끈끈한 관계가 있는 것을 그려보고 싶어서였죠.”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90×116cm, 유족소장 courtesy of the artist's family

“자연에서도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려 청자의 비취색이라
는 것이 푸른색이면서도 독자적인 색의 독특한 색감을 뽑내는 것이 아니라 주위
와 어울리는 은은한 멋이 우리를 매료시키는 그런 은은한 산의 색조에 신경을 썼
습니다.”

- 주간여성 1990.11.4. 발췌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30×193cm, 유족소장 courtesy of the artist's family

이용시간

평일 10:00 - 19:00

주말 10:00 - 18:00

동절기 (11 - 2월)

평일 10:00 - 18:00

주말 10:00 - 17:00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Opening Hours

Weekdays 10:00 - 19:00

Weekends 10:00 - 18:00

Winter season (November - February)

Weekdays 10:00 - 18:00

Weekends 10:00 - 17:00

Public holidays

Every Monday, 1st of January, Seollal, Chuseok

충북문화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67

67 Daeseong-ro 122beon-gil,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 043-223-4100 F 043-223-4101

www.cbfc.or.kr

충북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2F

2F Insaartcenter, 41-1, Insadong-gil, Jongno-gu, Seoul, Korea

T 070-4224-6240

www.cbfc.or.kr